

문법 교육과정의 실태와 개선 방안

이지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들어가며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 활동 및 학교 운영 전반을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을 살핀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학습의 골자를 이루는 교과와 배열과 조직을 떠올리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이를 문서화한 ‘교육과정 문서’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곤 한다. ‘문법 교육과정’의 전반을 살피고 현 실태와 개선점 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 논의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로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즉, 교과와 조직이나 배열, 그에 따른 학습 내용 및 교수·학습 과정을 교육과정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교육과정 문서를 통해 이를 살피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주도하에 그 체제가 구성되고 재편 되는데, 제7차 교육과정을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전면 개정에서 수시 개정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제○차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제7차 교육과정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이후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개정 연도를 앞에 명시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나타내게 되었다. 현행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2019년에는 모든 학년에서 현 교육과정에 따라 개정된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문법 영역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체 교육과정의 변화, 교육과정의 개정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부 교과 및 영역의 교육과정은 전체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그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도 2015 교육과정이 어떠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개정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 그러한 체제 안에서 문법 교육과정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고 또 이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일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과정 설계의 기초가 되는 중요 키워드는 바로 ‘핵심 역량’으로, 이 개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했던 ‘데세코(DeSeCo,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 본격적으로 제안되었다. 핵심 역량은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아와 삶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역량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교육과정 개정에서 이와 같은 ‘역량(Competencies)’이라는 개념을 도입, 범교과적인 일반 역량과 교과별 교과 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교육과정 설계의 기초로 삼았다.

국어 교과에서 설정하고 있는 교과 역량은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으로, 이에 대해서는 2015 교육과정 문서 중 ‘성격¹⁾’ 부분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국어에서 추구하는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은 다양한 상황이나 자료, 담화, 글을 주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만드는 능력이고, 자료·정보 활용 역량은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의사소통 역량은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검·조정하는 능력이며,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은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며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문화 향유 역량은 국어로 형성·계승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생산하는 능력이며, 자기 성찰·계발 역량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탐색하며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재능과 자질을 계발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이들 역량은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 요소로서, ‘국어’는 이를 신장하기 위해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성취 기준 및 효과적인 교수·학습과 평가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국어과의 교과 역량은 국어과 교육과정 전반에 지향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어과에서 길러 내고자 하는 인재상의 구체적인 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이 국어과의 학습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음에도 그것의 출발이 국어과의 목표나 내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 교과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 총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교과 역량과 교과서에서 구현되는 세부 교육 내용과는 일정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교과의 세부 교육 내용은 과거로부터 이어 온 그 교과만의 지식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1) 교육과정 문서는 교과별로 구성되며, 국어과 교육과정은 ‘1. 성격, 2. 목표, 3.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으로 작성되었다. 국어 교과와 국어 교과의 핵심 역량에 대한 본문의 기술은 이 중 ‘1. 성격’에 명시되어 있다.

그것을 역량 중심으로 재구성하거나 혹은 해석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재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²⁾.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문법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3. 2015 개정 문법 영역의 교육과정

국어과의 하위 영역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4차 교육과정에서 ‘표현·이해(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외에 ‘언어(문법)’와 ‘문학’이 추가된 이후로 5차 교육과정에서부터 6개의 영역이 유지되다가 2009 개정 교육과정³⁾부터 ‘듣기·말하기’가 통합되어 5개의 영역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법 영역은 4차, 5차, 6차 교육과정에서는 ‘언어’라는 명칭으로 다루어지다가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지식’으로 영역명이 바뀌었고,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는 다시 ‘문법’으로 영역명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영역명은 ‘문법’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서 문법은 ‘언어와 매체’라는 교과로 구현되어⁴⁾ 결국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국어’ 교과의 하위 영역명으로는 ‘문법’이, 고등학교 선택 과목명으로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2) 물론 제시한 역량의 개념은 목표나 성격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지향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교과 학습을 통해 특정한 능력을 기른다고 할 때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어떠한 능력은 교과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 교과 및 하위 영역의 교육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지향점과 관련성을 맺어야 하는 것이다.

3) 여기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실제적으로는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가리킨다. 2009년도에 총론이 개정된 이후 각 교과의 교육과정은 2011년도에 개정·고시되었기 때문이다.

4) 여기에서 ‘언어’는 기존 ‘문법’ 교과를 말하는 것으로, 정확히 말하면 ‘매체’ 과목이 신설되면서 문법 과목과 통합하여 ‘언어와 매체’라는 교과목으로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3.1. 내용 체계

앞에서 살펴보았던 역량의 개념이 교과와 세부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교과 및 영역의 ‘내용 체계’ 구성의 변화였다. ‘내용 체계’란 각 교과 혹은 세부 영역에서 그 내용을 조직할 때 작용하게 되는 틀과 같은 것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내용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학년(군)별 내용 요소					기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 학년	3~4 학년	5~6 학년	1~3 학년	1학년	
▶ 국어의 본질	국어는 사고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기호 체계로서, 언어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하여 고유한 국어 문화를 형성하며 발전한다.			• 사고와 의사소통의 수단	• 언어 기호	• 역사적 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발견하기 • 자료 수집하기 • 비교·분석하기 • 분류·범주화하기
▶ 국어 구조의 탐구와 활용 •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	국어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로 구성되며 이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국어 지식을 얻고 이를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 낱말의 의미 관계 • 문장의 기본 구조	• 낱말 확장 방법 • 문장 성분과 호응	• 음운의 체계와 특성 • 품사의 종류와 특성 • 문장의 짜임 • 담화의 개념과 특성	• 음운의 변동 • 문법 요소의 특성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설명하기 • 적용·검증하기 • 언어 생활 성찰하기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학년(군)별 내용 요소					기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 학년	3~4 학년	5~6 학년	1~3 학년	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규범과 국어생활 • 발음과 표기 • 어휘 사용 • 문장·담화의 사용 	발음·표기, 어휘, 문장·담화 등 국어 규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어 능력을 기르고 바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 • 낱말의 소리와 표기 • 문장과 문장 부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낱말 분류와 국어 사전 활용 • 높임법과 언어 예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따른 낱말의 의미 • 관용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 • 어휘의 체계와 양상의 활용 • 한글의 창제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에 대한 태도 • 국어 사랑 • 국어 의식 	국어의 가치를 인식하고 국어를 바르게 사용할 때 국어 능력이 효과적으로 신장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낱말·문장에 대한 흥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의 소중함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국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시대의 국어에 대한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사랑과 국어 발전 의식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내용 체계는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학년(군)별 내용 요소’, ‘기능’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러한 구성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기초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는 이유는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라는 개념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반인 이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 중심 교육과정(Understanding by design)’은 ‘본질적이고 영속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으로, 이때의 ‘이해’는 전이 능력에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미래 사회에서 어떠한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이력 높은 지식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 중심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관점이고 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내용 체계 표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다.

문법 교육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핵심 개념’으로 ‘국어의 본질, 국어 구조의 탐구와 활용, 국어 규범과 국어 생활, 국어에 대한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살펴보면, 문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개념은 기존 문법 교육에서의 내용 범주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문법 지식의 내용 범주가 핵심 개념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는 분분하다. 그것은 문법 교육에서 전이력이 높은 지식의 중핵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핵심 개념으로 무엇이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숙고와 논의 및 학계의 합의 등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법 영역은 국어과 하위 영역 중 상대적으로 지식 중심 영역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와 같은 핵심 개념을 제시하기에 보다 적절한 영역 혹은 교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법에 대한 탐구나 문법 탐구의 태도가 문법 교육 내용으로서 그 의의를 더해 가고 있는 현실점에서 과연 무엇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문법 교육 연구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일반화된 지식’은 핵심 개념에 대한 진술문으로, 이는 학습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본질적인 이해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법 영역에서 제시된 ‘일반화된 지식’ 역시 문법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본질적인 이해에 대한 포괄적 진술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각 핵심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국어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로 구성되며 이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국어 지식을 얻고 이를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와 같은 진술이 전이력이 높은 지식에 대한 포괄적 진술인지, 아니면 문법 학습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기술인지에 대해 명확히 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이해나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등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문법 교육의 장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3.2. 성취 기준

학습자들이 ‘교육 내용’을 생각할 때 처음으로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교과서일 것이다’⁵⁾.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으로부터 현장에서의 교수·학습도 출발하게 될 것이고 학습자들도 그것을 기본으로 삼아 앎을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교과서를 집필할 때 기본적인 뼈대로 삼는 것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이다. ‘성취 기준’은 교육과정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4) 문법

중학교 1~3학년 문법 영역 성취 기준은 다양한 문법 단위에 대한 이해와 탐구 활동을 통해 총체적인 국어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음운, 단어, 문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담화, 어문 규범에 관한 문법 능력을 갖추고, 국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데 주안점을 둔다.

- [9국04-01]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생활을 한다.
- [9국04-02] 음운의 체계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
- [9국04-03]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한다.
- [9국04-04] 품사의 종류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
- [9국04-05]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 [9국04-06]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 [9국04-07]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 [9국04-08]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한다.
- [9국04-09]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지닌다.

5) 실제적인 교육 내용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나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해 나가는 국면에서 새로이 구성된다. 교과서는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자료가 되지만 교육 내용 그 자체라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교과서가 교육 내용 구성의 출발 지점이 되거나 기본 토대가 되는 중요한 자료임은 분명하다.

위의 성취 기준은 중학교 1~3학년군의 성취 기준이다. 성취 기준은 국어과 하위 영역마다 위와 같이 학년군별로 제시되고⁶⁾, 이와 함께 ‘학습 요소’와 ‘성취 기준 해설’⁷⁾,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이 이어 제시되어 있다. 성취 기준은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그 결과 성취하게 될 능력을 나타낸 것으로 위의 성취 기준은 중학교 3년 과정 동안의 학습자들이 받게 될 문법 교육 내용의 골자가 된다.

문법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의 수는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줄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전체 교과가 학습량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 의도에 맞게 성취 기준의 수를 줄이고 있지만, 문법은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좀 더 강한 외부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취 기준의 수와 실제 학습 난이도는 별개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문법 교육이 학습자들의 삶에 보다 유용한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이나 학습 시의 체감 난이도를 낮추는 것 등은 학습량보다는 내용 구성 방식이나 교재 기술 방식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성취 기준을 구성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 중, 무엇을 가르치는가 외에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따른다. 이는 단순히 교수·학습의 기술적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년(군)별로 내용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위계화 문제나, 해당 문법 범주에서 문법 개념을 어느 정도의 깊이로 어떻게 조직화해 나가는가 하는 교수적 지식의 문제 등을 의미한다. 교육과정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교육과정이 교육 내용 구성의 뼈대가

6) 앞의 내용 체계 표에서 ‘학년(군)별 내용 요소’가 성취 기준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학년(군)에서의 성취 기준도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7) ‘성취 기준 해설’은 모든 성취 기준에 대해 기술되어 있지는 않다. 성취 기준에 대한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범위를 정해 주어야 하는 것, 혹은 새로이 나타난 성취 기준 등을 중심으로 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부에 대해서만 해설이 제시되었다.

된다고 할 때 이러한 지점까지 함께 고민하여 성취 기준을 제시해야만 교육과정에서 교과서로,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의 교수·학습 상황으로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3.3. 학습 요소

2015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항목에서 새로이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학습 요소’이다. 학습 요소는 성취 기준을 제시한 후 바로 아래 함께 제시된 항목인데, 학습의 내용과 범위를 짚막하게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이를 별도로 언급하는 이유는 교육과정 문서상에서 제시한 이 ‘학습 요소’가 교과서 집필이나 수업 구상 시에 학습의 양과 깊이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 요소를 아래와 같이 함께 모아 보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법 학습의 내용 범위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학년(군)	문법 영역 ‘학습 요소’
초등 1~2학년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 알기, 소리와 표기의 관계 이해하기, 문장 부호 바르게 사용하기, 글자·낱말·문장에 흥미 갖기
초등 3~4학년	낱말 분류하기(기본형, 모양이 바뀌는 낱말, 모양이 바뀌지 않는 낱말), 낱말의 의미 관계 이해하기(비슷한 말, 반대말, 상·하위어), 기본적인 문장의 짜임 알기, 높임법 바르게 사용하기,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갖기
초등 5~6학년	언어의 기능(사고와 의사소통의 수단), 낱말 확장 방법 알기(합성, 파생), 낱말의 의미 파악하기(문맥적 의미, 다의어, 동음이의어), 관용 표현 활용하기, 문장 성분 이해하기, 호응 관계 이해하기,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기
중등 1~3학년	언어의 본질(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음운 체계와 특성(자음 체계, 모음 체계), 단어의 표기와 발음 방법, 품사의 종류와 특성, 어휘의 체계와 양상, 문장의 짜임(술문장과 겹문장,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 담화의 개념과 특성, 한글 창제의 원리,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 갖기
고등 1학년	국어의 역사성,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음운 변동(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두음 법칙, 모음 탈락, 반모음 첨가, 거센소리되기), 문법 요소(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한글 맞춤법의 원리, 한국어의 발전에 관심 갖기(한국어의 위상, 국어 사랑)

위와 같이 학습 요소는 핵심어(키워드) 방식으로 성취 기준의 핵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 내용의 범위나 양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제한하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에서의 ‘음운 변동’을 살펴보면 성취 기준은 ‘음운의 변동을 탐구하여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한다.’와 같이 제시되었으나, 학습 요소에 음운 변동의 여러 현상 중 어떠한 것들을 학습 내용으로 해야 하는지 명기함으로써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이전에 음운 변동에서 다루어졌던 축약이나 탈락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교과서를 개발하거나 수업을 구상할 때 반드시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에서 제시한 것들만을 다루어야 한다는 강제력은 없겠으나 교과서 검정 체제하에서 일차적인 심사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이와 같이 구성되면 심리적으로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 요소에 어떠한 음운 현상을 넣고 빼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본질적으로 음운 현상 중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서를 개발할 때 검정 체제를 택한 이유 중 하나로 다양성 확보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음운 변동에서 다루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요소들까지 교육과정상에서 제시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반성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4. 나오며

지금까지 2015 교육과정에 제시된 문법 영역의 교육과정을 몇 가지 중요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현재 제도권 내의 교육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하나는 사회화의 과정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능력을 지니고 사회에 무리 없이 편입

되기 위한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 세계 진입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지적 세계에 대한 탐구 능력을 길러 세상을 존속·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다. 문법 교육도 이와 같은 두 가지 방향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방향에서는 현실적인 효용성이 강조되는 문법 교육 내용을, 후자의 방향에서는 언어에 대한 민감성과 학문적 탐구 능력이 강조되는 문법 교육을 지향한다. 그리고 무엇을 우선에 두든 이 둘이 조화롭게 교육 내용으로 구현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 목표를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교육과정’이라는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교육 계획의 국면을 마주하게 되면, 삶도 지식도 조화로운 지향점도 일정 부분 잘라 내어지거나 혹은 특정한 모양새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교육에 관여하는 다양한 층위에서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학계에서 합의되고 있는 교육적 철학이나 관점을 반영하면서, 그리고 교육 수행의 주체가 되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관여하는 모든 것들 사이에서의 길항 작용에 반응하며 변화하고 발전하는 결정체가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교육과정은 관여하는 어떠한 집단의 요구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한 그렇기 때문에 고여 있거나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대안을 찾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글은 현행 문법 교육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 가면서, 각각의 요소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문법이라는 영역과 교육과정의 체계가 어떻게 관련성을 맺고 구성되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문법 교육과정에서 더 고민해야 할 지점들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자 하였다. 교육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교육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문법은 언중의 언어생활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되고 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탐구 활동을 구성해 나간다. 교육과정 혹은 교육과정 내용을 낯설게 느끼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를 찬찬히 살펴보면 결국 그것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교육 주체들에 의해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2015-74호 별책 5.
- 구본관(2016a), “2015 교육과정 “문법” 영역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학연구》 51(1), 국어교육학회, 89~133쪽.
- 구본관(2016b), “문법 연구의 변화와 문법 교육의 변화 - 탈문법학 시대의 문법 교육의 새로운 지향 -”, 《국어교육연구》 37(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7~254쪽.
- 김경자(2011), 《이해중심 교육과정》, 교육아카데미.
- 김창원(2016), “2015 교육과정을 통해 본 국어과 교육과정 발전의 논제 - 영역과 내용 체계”, 《국어교육학연구》 51(1), 국어교육학회, 6~34쪽.
- 남가영(2017), “국어 문법교육에서 ‘이해 중심 교육과정’의 한계와 의미”, 《언어와 정보사회》 32(0),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31~59쪽.
- 송현정(2016), “2009와 2015 개정(改定) 국어과(國語科) 교육과정(教育課程) 문법(文法) 영역(領域) 비교(比較)”, 《어문연구》 44(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41~371쪽.
- 서영진(2015),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 공통 교육과정 ‘국어’를 중심으로 -”, 《청람어문교육》, 청람어문교육학회, 67~106쪽.
- 안찬원(2017), “문법 교육의 변화와 국어과 핵심역량 - 교육과정 내용과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 《문법교육》 29(0), 한국문법교육학회, 215~246쪽.
- 이광우 외(2017),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 관련 이슈 고찰: 인간상, 교육 목표, 교과 역량과의 관계”, 《교육과정연구》 35(2), 한국교육과정학회, 67~94쪽.
- 정혜승(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 중심 내용 체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4(3), 한국교육과정학회, 29~50쪽.

- 한혜정 외(2017), “학문중심 교육과정 및 이해중심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통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이해”, 《교육과정연구》 35(3), 한국교육과정학회, 203~221쪽.
- 허재영(2016), “국어사 교육의 변천과 발전 방향 -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 선정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27(0), 한국문법교육학회, 263~293쪽.